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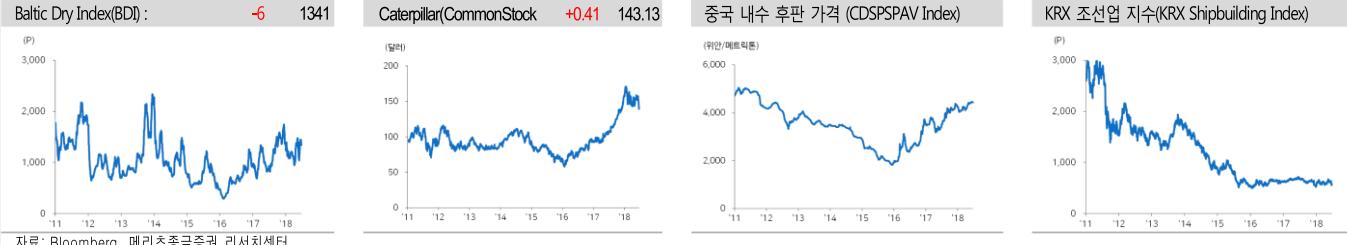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642.8	16.2	110,500	3.8	-9.4	-25.1	15.2	77.0	36.9	0.5	0.5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985.3	21.9	367,500	0.0	-9.5	-11.9	-3.5	5.0	4.1	0.7	0.6	14.1	14.7
현대알렉스틱	745.0	4.1	73,000	-0.7	-11.4	-4.5	-36.0	6.9	6.0	0.6	0.6	9.3	9.7
현대건설기계	1,392.6	8.6	141,000	0.4	-14.3	-18.3	-16.6	9.0	6.6	1.0	0.9	11.7	13.9
삼성중공업	4,561.2	17.0	7,240	4.0	-6.9	-9.7	11.9	45.7	22.7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685.5	3.5	25,050	5.0	-9.1	-11.2	80.2	7.5	10.9	0.8	0.7	10.9	6.8
현대미포조선	1,754.0	9.0	87,700	4.8	-9.1	-16.9	11.4	18.9	13.7	0.7	0.6	3.6	4.8
한진중공업	324.0	6.2	3,055	0.2	-10.8	-2.2	-7.7	61.5	15.3	0.4	0.4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743.0	21.2	101,000	-2.9	16.2	32.4	85.7	17.8	17.4	2.5	2.2	14.6	13.3
두산밥캣	3,102.7	25.7	30,950	-0.2	-9.2	-2.1	-13.5	11.3	10.7	0.9	0.8	7.4	7.6
현대로템	2,520.3	7.3	29,650	-2.6	5.9	96.4	58.1	38.2	26.1	1.7	1.6	4.5	6.3
하이록코리아	383.9	47.9	28,200	6.0	-26	25.6	25.3	12.8	11.7	1.1	1.0	8.8	9.0
성광밴드	330.3	17.3	11,550	2.7	-13.2	0.9	15.7	1,021.0	41.4	0.7	0.7	0.1	1.8
태광	318.0	12.9	12,000	1.7	-7.0	-12	-0.4	71.7	35.0	0.7	0.7	1.0	2.1
두산중공업	1,833.3	13.1	15,650	1.0	-15.9	4.3	2.0	18.7	102	0.5	0.5	3.6	5.4
두산인프라코어	1,954.6	16.7	9,390	-1.5	-10.1	2.5	8.1	6.6	6.1	1.0	0.9	16.3	15.2
두산엔진	131.1	4.1	3,980	-1.7	-15.7	1.9	54.9	-11.8	-23.5	0.3	0.3	-3.0	-3.5
한국항공우주산업	3,928.2	13.3	40,300	-1.1	-9.4	-18.0	-15.1	31.4	22.9	3.2	2.8	10.2	13.0
한화테크원	1,346.6	12.6	25,600	-2.5	-10.5	-11.9	-28.0	30.5	16.9	0.6	0.6	2.0	3.4
LIG넥스원	976.8	8.9	44,400	-4.1	-2.1	-9.2	-25.8	19.2	13.0	1.5	1.4	8.6	11.4
태웅	320.1	4.6	16,000	-1.2	-13.5	-13.3	-17.3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200.8	4.1	7,440	1.1	12.0	-6.2	47.3	-54.7	78.3	2.3	2.3	-4.3	3.1
한국기본	273.9	13.4	6,230	-2.7	-0.3	-1.3	16.2	34.0	17.7	0.8	0.8	2.5	4.7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지수 128p, 중고선가 지수 101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8p, 중고선가 지수는 101p를 기록함. 현대미포조선은 Hyproc Shipping에서 4만DWT급 MR탱커 1척을 수주함. 현대중공업은 Thenamaris에서 17.3만CBM급 LNG선 1척을 수주했고, 대우조선해양은 Maran Gas에서 옵션으로 보유했던 동형 선박 1척을 수주함. (Clarksons)

포스코, 국내 최초 대형 벌크선에 탈황설비 장착

포스코는 해운사 및 KDB산업은행과 벌크선 스크루버 장착을 위한 MOU를 맺음. 장착 비용은 선사가 산업은행에서 조달하고, 포스코가 향후 장착비용 전액을 원유로 시급할 계획임. 오는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벌크선 20척에 스크루버를 설치할 계획, 저유황유 사용 대비 연 700억원의 유류비 절감이 예상됨. (EBN)

Fearnley's forecasts tonnage shortfall of over 60 LNG ships

선박중개회사 Fearnley는 2018~22년까지 62척의 LNG선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전망함. 지금까지 발주된 LNG선은 2020년 신규 가동될 LNG플랜트의 생산물량을 감당하기엔 부족한 상황으로 분석함. 또한 최근 LNG선 spot 원유 회복과 함께 용선 시장에서도 선박 수급이 타이트해졌다고 알려짐. (TradeWinds)

AHTS rates set to jump as Norway sells out

노르웨이 북해의 AHTS(해양에인지원선)가 spot 시장에서 모두 가동되며 운임이 급등했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은 시추플랫폼을 해상 목표지점까지 이동하는 선박임. 총 11척의 AHTS가 가동되었고, 부족한 선박은 영국 AHTS와 노르웨이 PSVs(해양작업지원선)의 가동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Upstream)

강환구 현대重 사장 "해양부문 일감끊겨…8월 가동증단"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22일 해양 사업부는 일감이 확보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힘. 7월 말 나스르 프로젝트의 마지막 모듈이 출항하면 해양아드에 일감은 없는 상황임. 해양플랜트 수주실패는 높은 고정비를 원인으로 판단하고, 향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단 입장을 밝힘. (뉴스1)

천연가스의 땅 사하린, 한반도 ~ 러시아 '에너지 길' 잇는다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Arctic LNG 2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알려짐. 해당 프로젝트는 연 1,980만톤 규모의 LNG플랜트를 2023년 가동이 목표이며, 가동시 러시아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 될 전망임. Arctic LNG 1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셰빙LNG선 15척을 전량 수주했다고 알려짐. (파이낸셜뉴스)

Adam Polemis carries out VLCC renewal drive

그리스 선주 Adam Polemis는 소유한 New Shipping의 VLCC 폐선을 계획 중으로 알려짐. 최근 폐선은 상승으로 19년 선령의 VLCC를 폐선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15년 선령의 중고선을 매입했다고 알려짐. 동시에 Polemis는 탱커 신규 발주방안을 검토하며, 발주할 선형과 조선소는 밝히지 않음. (TradeWinds)

두산인프라코어 '중소기업 기술유용' 내달 심의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소명 절차를 밟고 있음. 관련 심사는 소명기간을 연장해 내달 초에 이뤄질 전망임. 두산인프라코어는 중소기업 건설장비 관련 기술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려짐. (이데일리)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6월 2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6월 2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지침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